

차당선인이 주목한 나주화탐마을 운영위원장 김병한 씨

# 전교조 출신 명퇴후 낙향 주민참여 이끌며 '고향 부흥'

성공한 농촌마을 모델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나주 화탐마을의 밑그림을 그리고 진두지휘한 김병한(61) 화탐영농조합법인 대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태로 해직된 뒤 촉발집을 하다 1994년 복직된 교사 출신이다. 이후 2010년 광주에서 조기 명예퇴직 후 낙향해 '고향 부흥'에 나섰다.

김 대표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조기 명퇴를 했는데 어르신들의 요청을 받고 고인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고향의 부흥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아내도 시골을 좋아해 결심하게 됐다"고 낙향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 향상과 농촌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삼은 그는 2008년 결성된 화탐영농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우를 판매하는 정육점, 구입한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구성된 이 법인은 모두 마을 주민을 고용해 일하고, 수익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설립자금은 지원금 4억원에, 마을주민 76명이 10만~150만원을 출자해 만든 3500만원 등으로 마련했다.



김 대표가 염두에 둔 문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민 간 이해가 대립돼 마찰과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규약을 만들어 민주적인 마을 조성을 결성하고 기존의 부녀회, 청년회 등 주체들의 역할을 정했다. 또 정육점과 식당은 매출의 5%를 마을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를 주민 모두를 위해 쓰기로 했다. 그는 "사실 분배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조합에서 나온 이익금의 5%를 마을기금으로 해 미래를 대비하자는데 모두가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귀농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4가구가 화탐마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다.

김 대표는 30년 후를 내다보며 '4S'를 준비 중이다. Smile(주민이 환하게 웃는 행복한 마을), S-smooth(환경에 부드럽게 조화되는 아름다운 마을), Smart(주민 간 소통이 활발한 마을), Study(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을)가 그것이다.

김 대표는 "나무를 심더라도 30년 후를 생각하며 심듯 시설도 마찬가지"라며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시골은 후손들이 없는 텅 빈 마을로 변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화탐마을은 2주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빙해 주민 모두 함께 공부하고 배운다. 조만간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견학 오는 외부 인들을 위한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김 대표의 단기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로과학위성 위치확인 어떻게

# 독자개발 레이저시스템 "추적 이상 무"

지난 31일 정상궤도 진입 교신에 성공한 나로과학위성의 위치 확인에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최첨단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 사용됐다. 첫 교신을 통해 나로과학위성의 목표 궤도 진입을 확인한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상국에서는 RF(주파수) 장비를 이용해 위성으로부터 통신 신호를 받았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천문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레이저추적 시스템(SLR·Satellite Laser Ranging)'은 더욱 상세한 위성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천문원이 2008년부터 개발해 온 이 시스템은 200~2만4000km 고도상에서 반사경이 장착된 인공위성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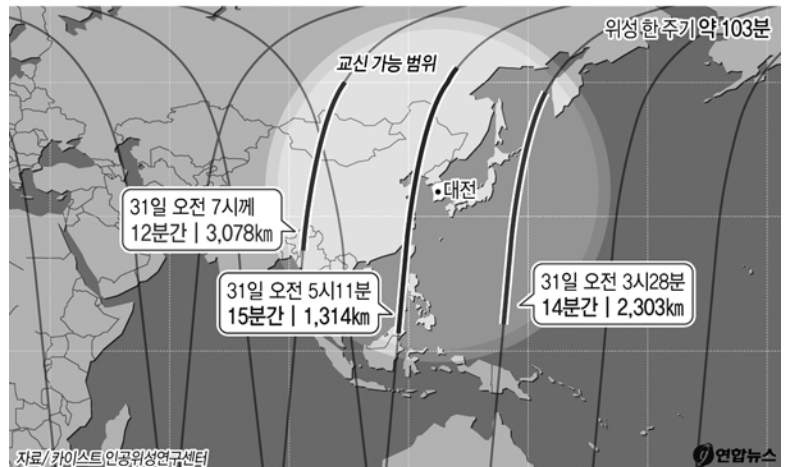
이 시스템은 밀리미터(mm) 단위가 지 측정할 수 있어 현재까지 개발된 위성 추적 방법 중 가장 정밀하다고 평가받는다. 지상에서 위성체를 향해 발사한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빛을 수신한 뒤 시간을 계산해 위성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30일 발사된 나로과학위성에도 레이저 반사경이 장착돼 있어 위성의 정밀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한 달간 자체 제어 등 기본 기능 시험을 거친 뒤 본격적인 위성 운영을 시작하면, 천문원은 SLR을 이용해 위치 추측에 들어가게 된다.

향후 나로과학위성이 이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명

나로과학위성 초기 교신 시간



실상부한 인공위성 레이저추적 시스템은 미국·중국·일본 등 20개국이며, 전세계에 약 40개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국·중국·일본 등 20개국이며, 전세계에 약 40개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4대강 보 없애면 조류농도 최대 57% ↓

민주 장하나의원, 예측결과 공개... 승춘보 53% 죽산보 17% 수질 개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세워진 16개 보(堰)를 철거하면 조류 농도가 최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질 개선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실험결과가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 기간 진행될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를 반영하고 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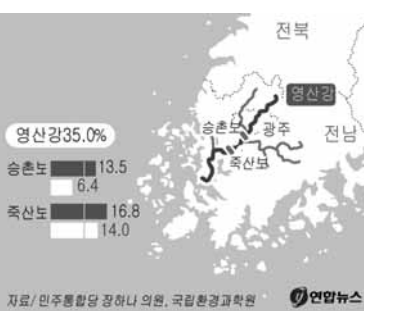
수질을 예측한 결과 16개 보 지역의 클로로필-a 농도는 16.56mg/m로 보가 있을 때 22.15mg/m에 비해 25.2% 낮았다.

보철 철거 전후를 보면 낙동강 칠골보가 23.6mg/m에서 10.2mg/m로 57%, 영산강 승춘보는 13.5mg/m에서 6.4mg/m로 53% 조류 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영산강 죽산보도 16.8mg/m에서 14.0mg/m로 17%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16개 보 가운데 철거 후 조류 농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이 예측은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와 똑같이 2006년의 기상조건과 수질예측모델을 적용하고 모두 수질개선 사업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장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자료는 사업비 약 3조

영산강 보 철거 전·후 조류 농도 증감률



9000억 원을 들여 얻은 수질개선 효과가 마치 보 설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 했다"며 "예산 투입 효과를 얻으려면 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렬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

1면 '고흥 우주시대'서 계속

오는 4월 24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이 이뤄진다.

지난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 편의와 행정사무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최고 5만원)를 3만5000원까지 경감해준다.

박정렬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 들어서는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 시험동은 3단에 들어가게 될 7t 엔진과 1.2단에 들어갈 75t급 액체엔진의 구성 부품과 예비 실험을 진행하는 장소다. 이곳은 ▲연소시험설비 ▲터보펌프 시험설비 ▲3단 엔진(7t급) 시험설비 ▲엔진진상시험설비 ▲엔진고공시험설비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등 6개 엔진시험설비와 제어계측동으로 이뤄진다.

또 지령송신방식도 아날로그였던 나로호와 달리 한국형발사체는 디지털 달이기 때문에 발사통제장비를 비롯해 추적레이더, 광학 장비등의 성능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향우연 관계자는 "현재 연소시험설비와 터보펌프 시험 설비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4년 4~5월 중 완공을 내다보고 있다"면서 "나머지 설비도 2016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가 많게는 수 조원이 투입되는 발사체 개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과거 정권의 관심 정도에 따라 지원 예산도 덩달아 늘거나 줄어 왔을 시황적으로 봐야겠다.

박 단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관련 인력은 200명인데, 외국은 인력 단위에 우리보다 10'가나 더 많다"면서 "당초 계획상으로는 20~30명 늘리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며 3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497억 횡령...비자금 조성은 무죄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동생인 최태원 SK 수석부회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감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31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 축농증 · 코피 해결

###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산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강남로, 대현생명, 구한미소평, 한재정소, 바로 옆으로 이전

진료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문의: 062)227-7575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 ~ 3.9.(토)	2013.1.24.(목) ~ 3.9.(토)
수업기간	2013.3.8.(금)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KTE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 Sthe1 오리학원

###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품안전 연출 석·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분별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문의 전화: 062)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양반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방법: 면접 및 필답고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nugpa.kr) 참조 바람
-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원, 경영인 등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 3. 관리자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